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이해와 장·단점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

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.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. 즉 이직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고 연금의 형태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개설방법

예전에는 퇴직금이 본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다면, IRP는 퇴직금이 주거래은행으로 들어간다.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IRP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.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장·단점

① 장점

-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기존 연금상품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. 그러나 IRP계좌를 운용하면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 즉,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-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.

연금저축은 10년 납부, 수령은 55세부터라는 사전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그렇지 않다.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고 연말에 600만원을 납입해도 무방하다.

② 단점

-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 시, 기타소득세 16.5%를 과세한다.

- 금융회사의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이다.

- ISA계좌와 세제혜택이 겹친다.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이 IRP퇴직연금과 겹칠 수 있다.

※ 참고자료

- 이영권 저,『100세 시대,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』

- 휴넷,『[행복한 회사 만들기] 퇴직연금 편(기도입 사업자용)』,
http://hbs.hunet.co.kr/Education/Detail?gid=Y00062751